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관련

선진지 사례조사 결과

201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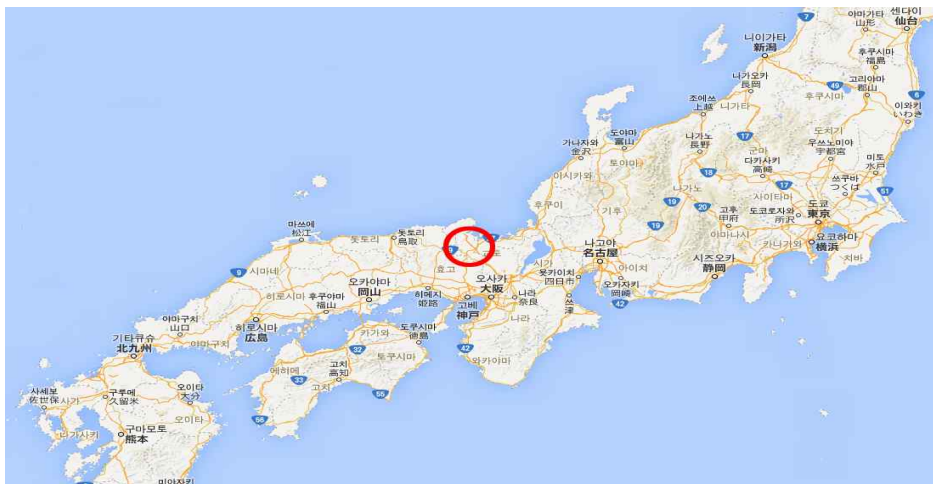
I. 조사 개요

1. 목적

- 본 조사는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의 효율적 지원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함
 - 전력의 공급을 위해 특정지역에 발전소 설치 주변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사업이 이루어짐
- 당진시도 발전소주변지역에 20여년간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발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의 제도의 모태가 되는 일본지역의 선진사례를 조사함으로써의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의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과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개요

- 출장기간 : 2013. 5. 11(월)~5. 14(목)
- 방문국가 : 일본
- 방문기관
 - 교토부(京都府)
 - 마이즈루시(舞鶴市)



○ 출장자

- 당진시 경제산업환경국장 김기서
- 당진시 지역경제과 주무관 김기복
-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고승희
-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책임연구원 이수철

2. 조사내용

- 교토부 로컬푸드(지산지소) 현황 조사 : 당진시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로컬푸드 정책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 조사
- 일본의 전원입지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사업 사례 조사
- 일본의 전원입지특별교부금의 운용 원칙, 배분 기준, 실제 사업수행 단계에서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체계 조사
- 로컬푸드(지산지소) 정책을 통한 마을 발전 방안 전문가 토론
 - 교토부의 지산지소 정책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 당진시의 로컬푸드 정책의 현황과 한계
 - 발전소주변지역 교부금을 활용한 로컬푸드 정책의 발전 방향 모색
- 당진시 발전소주변지역의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 수집

II. 주요 수행업무 및 조사 내용

1. 교토부와 당진시의 로컬푸드 정책 세미나

□ 장소: 교토대학교 농학연구부 연구실

□ 참석자

○ 교토부: 농림수산물식품안심안전추진과(農林水産部食の安心・安全推進課)

아라키 부과장(荒木副課長), 하시모토 주사(坂本主査), 泰子주사

○ 교토대학교: 호시노 교수

□ 주요 내용

1) 당진시 발표 내용

- 당진시 기본 현황
- 당진시의 로컬푸드 추진 정책
- 당진시 온배수 활용 사업 추진 계획

2) 일본 교토부 발표 내용

○ 교토지산지소 직판장 정책 현황

- 교토는 로컬푸드 직판장(현재 740개)이 매우 활성화 됨
- 절대 직판장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수익은 증가
- 소비자들은 직판장에서 신선한 지역음식을 실수 있다고 선호함

○ 직판장의 판매 형태

- 대면식(50%), 트럭 등 이동식(31%) 등의 다양한 형태
- 직매장 개설 주체로 살펴보면 개인 48%, 소그룹이 개설 36% 등이고 운영 형태는 민간운영이 대부분
- 매출 규모로 보면 소규모가 50%(300만엔), 1억엔 이상 6.2%

○ 교토부 지산지소 직매장의 역할

- 농산물 직매장은 판매+배움+먹음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

- 여기서 배우는 기능은 야채 수확 체험 등 간단한 농사 기능 등을 배움
- 먹는 것의 기능은 신선한 재료를 스스로 요리를 하고 즐기는 기능
- 소비자들도 단순한 먹는 것이 아닌 체험을 요구하고 있음
- 직판장 정책에서 행정의 역할
 - 판매+2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판매 확대 노력
 - 세 가지 기능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비용의 1/2이상 보조 가능
 -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리 시설의 수리 및 유지, 판매 확대를 위한 경영분석 및 매니지먼트 인력 지원, 배우는 기능 지원을 위해서는 학습 시설 보조 등
- 지역농산물의 공공시설 공급
 -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바코드와 생산자 사진 게재
 - 상품검사원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기본적으로 신용을 유지하는 정책 수행
- 지역식품 음식을 사용한, 식당, 복지시설, 병원, 학교 등의 '특별 시설 인증 제도'
 - 교토부에 145개소의 시설이 있음
 - 보건 시설(노인)의 경우 지역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노인)
 - 기업, 대학 등에서도 지역식품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유통기간이 짧다는 것임
 - 교토부에서는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 학교급식에서 지역 특산물 활용 정책
 - 신선하고 맛있어 호응이 높지만 높은 가격의 문제로 애로
 - 한 달에 2-3회, 주 1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 가격의 문제와 적당한 공급량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어려움에도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 기업과 농촌지역 연계
 - 기업과 농부와 협력하고 소비자와 연계하는 구조
 - 농가와 기업이 연계해서 농산물 가공제품을 만들어 유통하는 정책
 - 교토부는 이외에도 가공품을 만드는 것, 물류의 흐름을 바꾸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비의 1/3 보조
 - 이러한 가공식품은 생산, 농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날 생산한 것은 바로 유통시키려는 시도임
- 기업과 교토부 로컬푸드 협력 사례
 - 교토부+가코메 식품회사 협정: 브랜드화+로컬푸드 개발+식육개발
 - 가정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레시피 개발 등
 - 새로운 방식으로 굴을 먹는 행사 개최 등으로 홍보
 - 전국적인 회사와 협력하여 관광 비수기에 매칭하여 생산물 개발 확대



2. 마이즈루시 토레토레 수산물 유통센터(협동조합) 견학

□ 참석자

- 마이즈루시 토레토레 유통센터 Sumako Uwai 주임

□ 주요 내용

○ 토레토레 센터

- 1998년 국토교통성 사업으로 건설되어 마이즈루시에서 토레토레 유통 협조 조합에게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광역단체인 교토부가 제안하여 마이즈루시 지방진흥국에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받아들여 협동조합에 위탁 중
- 조합원은 수산물 판매 4명, 과자판매 2명, 음식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이 위탁운영 중
- 조합원들은 실질적 소유주 이면서, 임대료를 내고 상점을 운영
- 시장은 총 500평 규모로 부속시설로 주차장, 편의점, 주유소 등이 있음
- 편의점과 주유소는 임대 운영 중이고, 주차장 옆에는 특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의 로컬푸드 직판점을 운영 중

○ 토레토레 센터 운영 방식

- 마이즈루시에서 운영을 보조하고, 조합원이 출자하여 조합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
- 조합원도 출자했지만, 조합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상점의 자리배치는 협의해서 결정하며, 면적에 따라 차등적 임대료 부과
- 모든 사업은 협동조합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마이즈루시에서 사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 협동조합은 토레토레 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직(사무와 청소) 12명을 지역주민 중에서 고용

- 마이즈루시는 연휴나 휴가 기간에 축제 등을 개최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원
 -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오사카, 교토 등 주민들이 버스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수산물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 수산물과 별도로 로컬푸드(지산지소) 직매장 운영
- 70여개의 농가가 참여하여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
 - 개별 농가가 상장에 농산물을 담아 아침에 직판장에 놓아두고, 저녁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 판매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직판장에 납부
 - 1개 농가 당 평균적으로 3~5만엔의 수입을 올림. 마이즈루시는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참여하는 농가는 상당 부분의 부수입을 올림. 활발히 참여하면 1달에 10만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음
 - 가격은 판매자가 임의로 결정하지만, 주변 마트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신선해서 호응이 높음

	
<p>토레토레 센터 전경</p>	<p>토레토레 센터 수산물 판매점</p>



토레토레 센터 가공식품 판매점



토레토레 센터 수산물 취식 장소



토레토레 센터 직원 면접



토레토레 센터 농산물 직판장 전경



농산물 직판장 내 농가별 판매박스



농산물 직판장 내 농가별 판매박스

	
농산물 직판장 내 신선식품	농산물 직판장 내 가공식품

3. 마이즈루시 전원입지특별교부금 사업 현장 방문

□ 참석자

- 산업진흥부기업입지활용촉진과(舞鶴市産業振興部企業立地・雇用促進課)
아리요시 과장, 이다(飯田) 주무관

□ 주요 내용

1) 후루루 Farm

- 간사이 전력의 마이즈루시 석탄발전소 건립에 따른 전원입지 특별 교부금으로 건립
 - 총 12년간 40억엔의 교부금 지원
 - 한국과는 다르게 발전소 건립 이후에는 교부금 지원 없음
- 후루루 Farm의 개요
 - 후루루 팜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 식당, 숙박 시설, 농산물 가공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여 지역 관광의 거점 시설
 - 지역주민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직접 운영

○ 후루루 Farm의 운영 방식

- 소유와 운영의 분리되어 있음. 즉 전원입지 교부금을 바탕 시에서 건립하여 시설은 마이즈루시 소유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 음식점 이용자는 연간 3~4만명 정도
- 숙박은 1년 단위로 임대하여 안정적 수익 창출. 연간 임대료는 450만엔 정도로 임대를 하면 3~4평의 텃밭을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야함
- 지역주민 20명 정도 참여하여 농업법인 형태인 주식회사로 운영
- 마이즈루시는 후루루 팜 건설이후 관리를 농정진흥과로 이관하여 비영리 부문의 운영비 지원

○ 후루루 Farm 운영 효과

- 후루루 팜의 운영은 수익은 많지 않으나, 마이즈루시는 수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
- 농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이미지 제고
- 로컬푸드 직매장과 식당을 활용하여 지역 농민들의 판로개척의 효과



마이즈루 석탄발전소 전경



후루루 Farm 시설 개요



후루루 Farm 소개



후루루 Farm 식당



후루루 Farm 텃밭



후루루 Farm 숙박시설



후루루 Farm 농산물 직판장



후루루 Farm 체험시설

2) 마이즈루시 친해공원(해상공원)

○ 개요

- 간사이 전력 보조금으로 건립
- 폐선을 활용하여 공원을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관광객을 유치
- 공원에 식당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이 운영

○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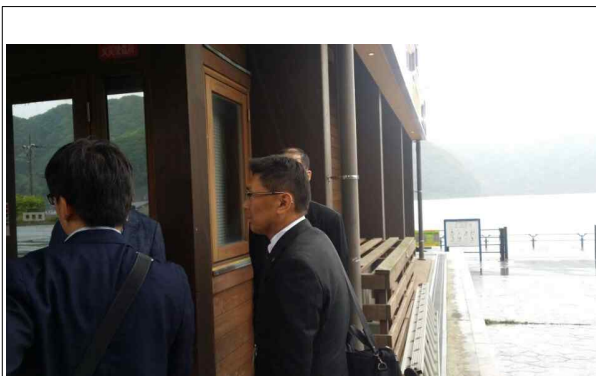
-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관광객 유치
- 식당의 2층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
- 지역주민의 고용과 수익, 지역 화합의 장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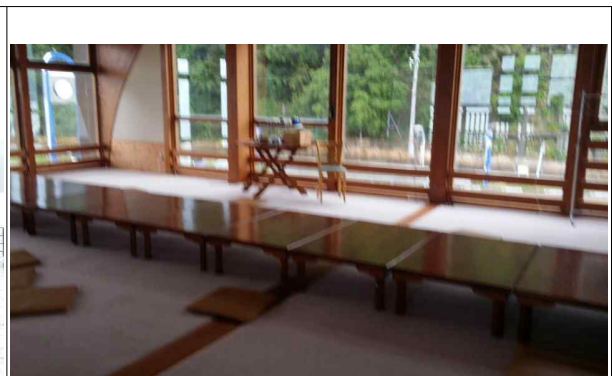
친해 공원 전경



친해 공원 식당



친해 공원 낚시터



친해 공원 주민모임 공간

Ⅲ. 시사점

-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당진시에 적합한 지역단위의 공동사업 개발 필요
 - 한국의 발전소주변지원 지원법과 일본의 전원3법은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일본의 사례를 당진시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 교토부와 마이즈루시의 경우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
 - 당진시의 경우에는 주로 개별적인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건설, 주민복지와 건강 증진 사업 등 개별적 지원 사업이 중심
 - 교토부와 마이즈루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별적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면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됨
- 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성 증대 필요
 - 당진시의 경우 단순한 예산의 배분 등의 계획수립과 시행 등의 소극적 관리 양상
 - 일본 교토부와 마이즈루시의 경우 로컬푸드 인증사업, 기업과의 연계, 홍보, 비영리부분의 예산지원 등 다양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선진 사례의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교부되는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민관 부분과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마이즈루시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진흥부에서 교부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만, 사업이 지속될 경우, 후루루 Farm의 지원을 농업부서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당진시도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부서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
 - 일본의 경우 발전소 건설과정 중에만 지원금을 교부하여 지속성이 없는 반면, 한국의 경우 발전소가 가동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을 교부하여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 가능
 - 따라서 일회적이고 사업보다는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마이즈루시의 경우 단순한 수익의 문제가 아닌 지역이미지 개선, 관광 활성화, 지역고용,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당진시의 경우 안정적 보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